

코스피지수  
1,378.14 (-36.75)코스닥지수  
528.00 (-13.25)금리(국고채 3년)  
3.88% (-0.03)원·달러 환율  
1,251.00원 (+17.80)

현대삼호重 81위·삼성광주전자 122위·금호산업 127위

## ‘매출상위’ 1000대 기업

## 광주·전남 34개社 랭크

총 매출 25조 … 제조업이 66%

현대삼호중공업, 삼성광주전자 광주공장, 대한조선 등 광주·전남 34개 기업이 한국 1천 대 기업에 랭크됐다. 또 이를 기업은 전년도에 비해 19.5% 증가한 25조4천391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광주상공회의 소가 4일 내놓은 ‘2008년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 중 광주·전남지역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천대 기업에 포함된 광주·전남 소재 기업은 34개사(3.4%)로, 매출액은 25조4천391억원으로 전국의 1.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17개 업체(1.7%)가 1천대 기업에 포함됐고 매출액은 10조9천 438억원(0.6%)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7개 사로, 이를 기업 매출액은 14조4천953억원(0.8%)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는 현대 삼호중공업(전국 순위 81위)으로 나타났고 2위 삼성광주전자(〃 122위), 3위 금호산업(〃 127위), 4위 한국바스프(〃 134위), 5위 금호 타이어(〃 135위) 등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조선(599위), 메타박스코리아(756위), 부국철강(901위), 호반건설(917위) 등은 새롭게 1천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대한조선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92.4%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산(55개사·5.5%) ▲경남(54개사·5.4%)

▲경북(40개사·4.0%) ▲인천(31개사·3.1%)

▲울산(26개사·2.6%) ▲충남(25개사·2.5%) 등도 광주·전남을 크게 앞섰다.

1천대 기업 비중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전남은 10위에 그쳤고 매출액도 각각 광주 11위, 전남 9위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1천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로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38.9%)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7천538 억원으로 전체의 65.9%, 건설업은 5조5천373 억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에 견줘 27.2%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5% 감소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산(55개사·5.5%) ▲경남(54개사·5.4%)

▲경북(40개사·4.0%) ▲인천(31개사·3.1%)

▲울산(26개사·2.6%) ▲충남(25개사·2.5%) 등도 광주·전남을 크게 앞섰다.

1천대 기업 비중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전남은 10위에 그쳤고 매출액도 각각 광주 11위, 전남 9위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1천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로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38.9%)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7천538 억원으로 전체의 65.9%, 건설업은 5조5천373 억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에 견줘 27.2%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5% 감소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는 현대 삼호중공업(전국 순위 81위)으로 나타났고 2위 삼성광주전자(〃 122위), 3위 금호산업(〃 127위), 4위 한국바스프(〃 134위), 5위 금호 타이어(〃 135위) 등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조선(599위), 메타박스코리아(756위), 부국철강(901위), 호반건설(917위) 등은 새롭게 1천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대한조선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92.4%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산(55개사·5.5%) ▲경남(54개사·5.4%)

▲경북(40개사·4.0%) ▲인천(31개사·3.1%)

▲울산(26개사·2.6%) ▲충남(25개사·2.5%) 등도 광주·전남을 크게 앞섰다.

1천대 기업 비중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전남은 10위에 그쳤고 매출액도 각각 광주 11위, 전남 9위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1천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로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38.9%)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7천538 억원으로 전체의 65.9%, 건설업은 5조5천373 억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에 견줘 27.2%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5% 감소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는 현대 삼호중공업(전국 순위 81위)으로 나타났고 2위 삼성광주전자(〃 122위), 3위 금호산업(〃 127위), 4위 한국바스프(〃 134위), 5위 금호 타이어(〃 135위) 등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조선(599위), 메타박스코리아(756위), 부국철강(901위), 호반건설(917위) 등은 새롭게 1천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대한조선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92.4%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산(55개사·5.5%) ▲경남(54개사·5.4%)

▲경북(40개사·4.0%) ▲인천(31개사·3.1%)

▲울산(26개사·2.6%) ▲충남(25개사·2.5%) 등도 광주·전남을 크게 앞섰다.

1천대 기업 비중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전남은 10위에 그쳤고 매출액도 각각 광주 11위, 전남 9위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1천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로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38.9%)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7천538 억원으로 전체의 65.9%, 건설업은 5조5천373 억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에 견줘 27.2%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5% 감소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는 현대 삼호중공업(전국 순위 81위)으로 나타났고 2위 삼성광주전자(〃 122위), 3위 금호산업(〃 127위), 4위 한국바스프(〃 134위), 5위 금호 타이어(〃 135위) 등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조선(599위), 메타박스코리아(756위), 부국철강(901위), 호반건설(917위) 등은 새롭게 1천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대한조선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92.4%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산(55개사·5.5%) ▲경남(54개사·5.4%)

▲경북(40개사·4.0%) ▲인천(31개사·3.1%)

▲울산(26개사·2.6%) ▲충남(25개사·2.5%) 등도 광주·전남을 크게 앞섰다.

1천대 기업 비중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전남은 10위에 그쳤고 매출액도 각각 광주 11위, 전남 9위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1천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로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38.9%)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7천538 억원으로 전체의 65.9%, 건설업은 5조5천373 억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에 견줘 27.2%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5% 감소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는 현대 삼호중공업(전국 순위 81위)으로 나타났고 2위 삼성광주전자(〃 122위), 3위 금호산업(〃 127위), 4위 한국바스프(〃 134위), 5위 금호 타이어(〃 135위) 등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조선(599위), 메타박스코리아(756위), 부국철강(901위), 호반건설(917위) 등은 새롭게 1천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대한조선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92.4%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

▲부산(55개사·5.5%) ▲경남(54개사·5.4%)

▲경북(40개사·4.0%) ▲인천(31개사·3.1%)

▲울산(26개사·2.6%) ▲충남(25개사·2.5%) 등도 광주·전남을 크게 앞섰다.

1천대 기업 비중에서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전남은 10위에 그쳤고 매출액도 각각 광주 11위, 전남 9위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1천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로 늘어난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38.9%)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7천538 억원으로 전체의 65.9%, 건설업은 5조5천373 억원으로 21.8%를 차지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에 견줘 27.2%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5% 감소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에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는 현대 삼호중공업(전국 순위 81위)으로 나타났고 2위 삼성광주전자(〃 122위), 3위 금호산업(〃 127위), 4위 한국바스프(〃 134위), 5위 금호 타이어(〃 135위) 등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대한조선(599위), 메타박스코리아(756위), 부국철강(901위), 호반건설(917위) 등은 새롭게 1천대 기업에 진입했다.

또 대한조선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592.4% 증가해 광주·전남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순위에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메이 앤 콘트롤러의 경우 순위가 253계단 상승한 53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529곳)과 경기도(141곳)에 1천대 기업 670개사가 위치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했다.